

“연간 수익 손실 300억원”...“혁신도시 승객 늘어 불가피”

나주버스 광주지역 추가 운행 요구...갈등 재점화

전남지역 농어촌버스가 광주 도심에 운행하는데 따른 광주지역 버스업계의 손실액이 300억원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나주 지역에서 버스 추가 운행을 요구하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광주시의 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나주의 농어촌버스 운행으로 광주지역 버스업계 수익이 줄고, 덩달아 이를 보전해줘야 하는 광주시의 준공영제 부담도 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립에 맞춰 광주 시내버스 운행 대수를 줄이고 일부 구간을 재조정 할 경우 광주지역 버스업계의 수익이 더욱 줄어들고 광주시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시·도간 경계지점을 초과해 운행할 수 있는 거리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11월 말께 국토부는 나주교통 180번 노선 광주권 내 정류장 확대 요청에 대한 4차 조정위원회를 연다. 앞서 나주교통은 지난 2015년부터 4차례에 걸쳐 이 같은 조정 신청을 했고 지난 2월 3차 신청에서 국토부는 광주시와 나주시가 공식협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권고했었다.

현재 나주교통 측은 나주터미널-혁신도시-전남대병원-전남대 후문 구간에 농어촌버스 40대를 투입해 1일 120회 운행하고 있다. 또 나주교통은 조정 신청을 통해 정류장 수를 22개로 현재보다 7개 늘릴 것을 요청했다.

이에 광주지역 버스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지역의 농어촌버스 점유율이 22.2%로 전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고, 농어촌버스 운행에 따른 연간 운송

광주도시철도 2호선 개통엔

버스 감차로 피해 더 커질 우려

8월 실무협의회 합의점 못찾아

월말 국토부 조정위원회서 결말

수익 손실이 300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나주시를 비롯해 화순·담양·장성·함평지역의 농어촌버스 222대가 하루 2022회 운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농어촌 버스의 광주도심 주요(혁신도시) 운행으로 승객 점유율은 21%에 달하고, 예상누출액은 301억원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나주지역 버스의 광주 운행으로 인한 손실만 123억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주지역 버스업계는 국토부의 권고에 따라 지난 8월 구성했던 실무협의회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국토부 4차 조정위원회에서 나주교통의 의견을 받아 주면 운송수익 손실은 더욱 커지고, 이는 광주시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나주시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인근의 담양, 장성, 화순, 함평 등지의 반발과 추가 운행 요구도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나주지역의 주장에도 설득력이 있다. 빛가람혁신도시 조성으로 광주와 나주를 오가는 나주 지역민이 늘어 광주지역 정류장 확대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광주지역 버스업계는 시도간 초과 운행 거리를 현행 시·도간 경계지점으로부터 30km에서 5km로 축소하는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광주지역



19일 오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한전KDN(주) 회의장에서 제7차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가 열렸다.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중갑 한전 사장, 박성철 한전KDN 사장 등 기관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버스가 나주지역을 직접 운행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할 방침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으로 버스업계의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는 광주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버스 업계 사업자 간 다툼이기에 지자체가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농어촌 버스가 애초 사업계획대로 운행하고 있는지 전수 조사 후 위법사항 발견되면 행정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대통령 “한일 역지사지해야...아프다고 진실 외면할 수 없다”

한일 협력위원회의 서면 축사

문재인 대통령은 “식민지 시대는 한일 모두에게 아픈 과거다. 그러나 아프다고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며 “양국이 역지사지의 자세로 정의와 원칙을 바로 세운다면 마음을 터놓는 진정한 친구가 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앞서 교도통신은 문 대통령이 18일 서울 시내에서 열린 한일-일한협력위원회 합동총회에 “한일관계를 위해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면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청와대에서는 하루가 지난 19일 문 대통령의 서면 축사 전문을 배포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난달 말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이후 한일관계 긴장감이 높아지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서면 축사에서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며, 양국 교류의 역사는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다”면서도 “양국의 오랜 우호 협력의 역사 속에는 불행한 시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속가능하고 견고한 한일관계를 위해서도 우리는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며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한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면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청와대에서는 하루가 지난 19일 문 대통령의 서면 축사 전문을 배포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난달 말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그러면서 “한일관계도 양자 차이를 넘어 더 단계를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의미에서 ‘동북아 경제와 한일관계의 미래’라는 합동총회의 주제가 시의적절하다”며 “한일협력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경륜을 나눠달라. 좋은 방안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실천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요즘 한국의 가을 단풍이 아름답다. 이번 단풍은 무더위를 지나며 더욱 선명하고 고요했다”며 “한국의 가을을 일본 대표단과 나누게 돼 아주 기쁘다. 여러분의 수고에 힘입어 한일관계가 더 깊고 단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6개국 수영연맹 관계자, 광주세계수영대회 현장답사

선수촌·부대시설 동선 체크

자국 선수들 편의 정보 수집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를 앞두고 각국 수영연맹 관계자들의 경기시설 사전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일 독일 수영연맹 관계자가 광주를 방문한 데 이어 14일 캐나다-호주-영국, 19일에는 이탈리아와 덴마크의 관계자가 광주를 찾아 내년 수영대회 경기시설 등을 사전 답사했다.

이번에 광주를 방문한 관계자들은 독일

의 크리스티안 허시만 등 수영연맹 관계자를 비롯해 캐나다의 존 앳킨스 수영대표팀 감독, 영국의 던 퍼트 국가 수영프로 그램 매니저, 호주의 조지 로쉬 올림픽 코디네이터, 이탈리아의 카이사르 부티니 오픈워터수영 수석코치, 덴마크의 딘 볼스 수영대표팀 수석코치 등 6개국 총 10명이다.

광주를 찾은 유럽과 북미 국가들은 경기장과 선수촌을 방문해 객실 현황을 살피고 선수촌과 각 부대시설과의 거리를 파악하는 등 자국 선수들의 편의를 위한 세심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경기장의 동선과 경기 운영 방법 등을 꼼꼼히 체크했다.

조직위 관계자들에게도 자국 선수단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광주대회 성공을 위해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알려주는 등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오는 12월에는 스페인 수영연맹 관계자의 방문이 예정돼 있으며, 2021후쿠오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계자 등 타 대회 개최 도시 관계자들의 방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조직위 조영택 사무총장은 “각국 수영연맹의 방문을 환영한다”며 “각국 연맹의 방문을 통해 조직위도 현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경사노위 22일 청서 첫 회의...문대통령 참석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과 함께 개최하는 1차 분위원회 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다.

김경희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경사노위 첫 회의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다. 문 대통령이 초청하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분위원회는 경사노위의 최고 의결 기구로,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공익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한 주요 노·사단체 대표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해 참가 폭을 넓혔다.

문 대통령이 경사노위 분위원회 첫 회

의에 참석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의 중심 역할을 할 경사노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극화를 비롯한 핵심 사회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해결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분위원회 위원은 18명이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합류하지 못해 일단 17명 체제로 시작한다. 첫 회의에도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한 1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임동욱 기자 tuim@

HNT 하나투어

여행은 무안공항에서 시작하세요!

광주일보 고객 예약자 대상 혜택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대 교환권 제공(성인기준)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 228-1199

대만/동남아		일본/중국		
<p>대만</p> <p>699,900원~</p> <p>대만/시우펀/야류 3일,4일</p> <p>현지저녁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운항일 월,목,금,토 3박4일/수,목,금,토 2박3일(12월19일까지)</p> <p>매일 운항 3박4일 (12월20일부터)</p> <p>#태국거리,불거리가득</p>	<p>방콕</p> <p>699,000원~</p> <p>방콕/파타야 5일,6일</p> <p>현지저녁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운항일 수,목요일 3박 5일</p> <p>토,일요일 4박 6일</p> <p>#태국 맛3 #은족 #다이나믹여행지</p>	<p>코타키나발루</p> <p>979,000원~</p> <p>코타 5일,6일 시내 준특급</p> <p>현지저녁 가이드+기사경비 \$30 선택경비 있음</p> <p>운항일 목요일 3박 5일</p> <p>일요일 4박 6일 *12월 23일부터 운항</p> <p>#아일랜드호텔 #반딧불투어</p>	<p>기타큐슈</p> <p>590,000원~</p> <p>기타큐슈/유후인/벳부 4일</p> <p>현지저녁 가이드+기사경비 3,000엔</p> <p>선택경비 있음</p> <p>운항일 일요일 4박 6일</p> <p>지속운전 #캐넌시티</p>	<p>오사카</p> <p>970,000원~</p> <p>오사카/교토/나라 4일</p> <p>현지저녁 가이드+기사경비 있음 선택경비 있음</p> <p>운항일 일,월,목 3박 4일(12월 21일까지)</p> <p>매일 운항 (12월 22일부터)</p> <p>#일한관광협회 #다양한 특식</p>
<p>세부</p> <p>570,000원~</p> <p>세부5일-솔레아리조트</p> <p>현지저녁 가이드+기사경비 \$30 선택경비 있음</p> <p>운항일 화,수,금,토 3박 5일</p> <p>*12월 21일부터 운항</p> <p>#해양+관광 즐기기 #필리핀의 보물</p>	<p>캄보디아</p> <p>949,000원~</p> <p>캄보디아 4일,5일</p> <p>현지저녁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운항일 2월2일, 2월9일 3박5일</p> <p>2월6일, 2월13일 3박4일</p> <p>#천년의 도시 #세계유네스코유산</p>	<p>다낭</p> <p>899,000원~</p> <p>다낭/호이안/후에 4일,5일</p> <p>현지저녁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운항일 토요일 3박4일, 화요일 4박5일(12월20일까지)</p> <p>매일 운항 3박 4일 (12월21일부터)</p> <p>#4성급호텔 #부동산가이드 #후에전통가</p>	<p>상해</p> <p>299,000원~</p> <p>상해/항주/주자각 4일,5일</p> <p>현지저녁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운항일 수요일 3박 4일</p> <p>토요일 4박 5일</p> <p>#상해야경#동양의 베니스 #주자각 맛집이</p>	<p>상해/장가계</p> <p>1,290,000원~</p> <p>상해/장가계/원가계 4일,5일</p> <p>현지저녁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있음</p> <p>운항일 수요일 3박 4일</p> <p>토요일 4박 5일</p> <p>#전해제일명산 #일식이조여탕</p>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틸리티요금, 공항이용료, 전정보형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된다.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되는 상품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중로구)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주)하나투어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별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청진/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영업 보증보험 2억 1천만원 가입 *항공권 또는 항공편에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틸리티요금과 세제과금(기)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음.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관광의 금액 및 선택관광 및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 참조.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여행 유의사항 ■출수 권고 ■여행 금지